부활에 대한 믿음은
우리에게 죽음을 넘어
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.

(생활규칙 24)

오늘 2025 년 9 월 17 일 오전 4 시 45 분

네그랄 공동체에서

엘레나 , 가브리엘라 마리아 레니에르 수녀님이

(ELENA, Sr GABRIELLA MARIA RENIER)

86 세로(64 년간의 수도생활)

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.

"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."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는 64 년 동안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고 세심하며 모성적인 사도직을 살았던 가브리엘라 수녀의 삶에 대해 선한 목자께 감사드립니다.

엘레나는 1939 년 9 월 16 일 콩체 디 코데비고(PD)에서 태어나 1939 년 9 월 23 일 콘체(PD)의 성 마리아 델라 네베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. 그는 1958 년 9 월 2 일 알바노 라지알레 – 수녀회 모원으로 입회했고, 1960 년 9 월 2 일에 입수련 했습니다. 수녀는 1961 년 9 월 3 일 가브리엘라 마리아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. 첫 서원 후 수녀님은 Budrione(MO)의 사도직으로 1963 년 산 프로스페로(MO)와 1965 년 바리(BA)로 파견되었습니다. 수녀님은 1966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.

가브리엘라 수녀는 초기 양성 때부터 기도의 사람, 모아들이는 사람, 겸손, 도움, 관대하고 어떤 필요에도 응할 수 있는 사람,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. 부지런하고 질서 정연하며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목 사도직을 사랑하는 수녀입니다.

한 수녀는 수녀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. *나는 사목 사명을 맡고 실천하는 그녀의 끈기와 확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. 최근 몇 년 동안, 특히 노인과 병자들과의 관계에서 수녀님이 아침에 다른 일로 바쁠 때나 미사 후 저녁에 성당 좌석에 앉아 수녀님을 찾는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. 수녀님은 침묵을 지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. 기도는 수녀님의 사도직이 되었고, 매일 묵주기도의 구슬 하나하나가 얼굴이었고, 선한 목자에게 넘겨드려야 할 이야기였습니다.*

수녀님은 유치원의 교육 현장, 사목 종사자 양성, 가정사목, 노인 및 병자의 사목 돌봄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.

수녀님이 아는 한 젊은 여성은 가브리엘라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*감옥에 있는 저를 방문하러 온 수녀님께 감사드리며, 저는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... 당신들은 내 가족처럼 갈망하고,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 당신들을 많이 사랑합니다.*

가브리엘라 수녀는 종신 서원을 마친 후 바리(BA) 공동체로 돌아와 1973 년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알바노 라지알레 – 모원에서 면학 기간을 보냈습니다. 그 후 그는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사목 사도직을 계속했습니다: 1975 년 Rossano (CS); 1986 년 Statte(TA); 1996 년 Doria (CS); 2001 년 Avellino(AV)와 2006 년 Barletta(BT)에서 2025 년 7 월까지 머물렀습니다. 몇 주 동안 건강이 매우 위태로워져서 네그라르 공동체로 옮겨와 지내셨습니다.

가브리엘라 수녀는 마지막까지 강렬하고 풍성한 사목 사도직을 살았지만,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의 약함을 알고 네그라르의 수녀 공동체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. 수녀님은 처음부터 사도 성 요한(Barletta) 공동체에서 지내 왔습니다. 본당 사제 돈 리노 마스트로도메니코는 공동체에 대한 인사를 거행하는 동안 수녀님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: *선한목자예수수녀회 의 현존과 내 사제직과 내 삶의 수호자이며, 항상 경계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신 가브리엘라 수녀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.*

수녀님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도직에 머물 수 있도록 본당과 함께 필요한 보살핌을 베풀어 준 바르레타 공동체 수녀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가브리엘라 수녀님을 사랑으로 돌봐 준 네그라르 공동체 수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.

가브리엘라 수녀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, 이 어려운 세계 분쟁의 시기에 고통받는 인류의 마음 속에 거하는 평화에 대한 갈망을 선한 목자께 전구해 주실 것을 우리 수녀님께 간구합시다.

총 장
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

2025 년 9 월 17 일 ,로마
성 로베르또 벨라르모